

Have you ever been mystified about the presence of evil in the world? Why does evil so often seem to get the upper hand? Don't you think that Daniel must have wondered about these things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he found himself in ancient Babylon? Chapter 8 of the book of Daniel provides a penetrating insight into some aspects of the mystery of evil.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 종잡을수 없는 신비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사단은 왜 그토록 자주 우세한 쪽에 있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은 고대 바벨론에 살던 다니엘이 그가 처한 상황속에서 이러한 것들에 관해 분명히 궁금해 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경 다니엘 8 장은 몇가지 관점에서, 그러한 사단의 신비를 꿰뚫는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But before we get into this chapter, I need to make some introductory remarks. What we have here is prophecy. I make this point because the accuracy of the predictions here in Daniel chapter 8 is so great that it is too much for many modern commentators. They have great difficulty with the fact that this is prophecy. Verse 1 tells us that this vision was given to Daniel in the 3rd year of the reign of King Belshazzar - that is, about the middle of the 6th century BC. But what Daniel is actually being shown (as we now know after the event) is the flow of history from the 6th century BC right up until the 2nd century BC. Many modern commentators say that it is impossible to predict history so accurately. And so they claim that the book of Daniel must have been written after the event, in the 2nd century BC. In effect, they say that Daniel 8 is propaganda written after the event to make the Jews feel a bit better. I want to insist right at the very beginning that what we have here is not propaganda but prophecy. What others saw after the event, Daniel is being shown beforehand. The bottom line is really one of belief or unbelief. Do we have a God who knows the future or do we not? Do we have a God who rules the future or do we not? Do we have a God who can share his secrets with his people or do we not?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두적인 몇마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예언입니다. 제가 이점을 강조하는 것은 여기 다니엘 8 장의 예언의 정확성이 너무도 대단하여 많은 현대의 주석가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예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 합니다. 1 절에서는 이 환상이 벨사살왕의 정권 3 년차에 다니엘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 약 기원전 6 세기 중반 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실제로 본것은 (그 사건 후에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듯이) 기원전 6 세기부터 2 세기까지에 이르는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 주석가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역사를 예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경 다니엘이 기원전 2 세기에,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쓰여진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효과로, 그들은 다니엘 8 장이 유대인들의 기분을 더 좋게 하기위해 사건 이후에 쓰여진 선전문구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말씀이 위장된 선전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고집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건 이후에 본것은 다니엘에게 미리 앞서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믿느냐 안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우리는 그의 비밀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What is Daniel shown in this vision? I believe that he is being shown the events as they unfold from God's perspective. Things look very different from God's perspective! History, for example, speaks of Alexander the Great as a truly great figure, or one of the great men of world history. He conquered the world in his mid-20's. Yet God in this vision given to Daniel calls him a billy goat - a goat who runs so fast that his feet don't touch the ground. That is how Greece's first king is depicted in Daniel 8. The world speaks about the conflict of warring ideologies, but God sees it as a scrap, a fight, between a ram and a billy goat. God sees the coming conflict between the Medo-Persian empire and Alexander the Great's Greek Empire as a scrap between these 2 animals with the billy goat coming off best - shattering the ram's 2 horns and trampling him into the ground.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통해 보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앞으로 풀려나갈 사건들이 그에게 보여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은 매우 다르게 보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는 알렉산더 제왕을 참으로 엄청난 인물, 혹은 세계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 중 하나로 이야기 합니다. 그는 20 대 중반에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준 환상속에서, 그를 숫염소 - 땅에 발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빨리 달리는 염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8 장에서 묘사된 그리스의 첫번째 왕입니다. 세상은 맞서 싸우는 이데올로기들의 대립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숫양과 숫염소사이의 양탈,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메도 페르시아 왕국과 위대한 그리스 제왕 알렉산더 사이의 싸움을 이들 두 동물 간의 다툼-그 수양의 두개의 뿔이 꺾이고 그가 땅에 짓밟혀져서 숫염소의 승리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r take the little horn on which the chapter really focuses. After Alexander the Great died in 323 BC, his kingdom was divided into four among his four generals and from one of those smaller kingdoms eventually, in the 2nd century B.C. came the leader, Antiochus Epiphanes. He is the one described in Daniel 8 as “another horn which started small” (v. 9). Compared with the ram and the goat, his power is minimal but the significance of this man lies not in any kind of greatness he himself possesses. Rather his significance in the prophecy of this chapter is seen in vv. 9-12. Verse 9 tells us that this little horn “started small but grew in power to the south and to the east and toward the Beautiful Land”. Now Israel, the Holy Land, is not really very beautiful as far as the scenery is concerned – parts of it are very barren and desolate – but from God’s perspective it is indeed a beautiful land. Why? Because it is in that part of the world that he is going to work out his saving purposes. It is the place where his people have lived and will continue to live. It is the place where his Temple is located in Jerusalem. It is the place where his Son is going to be crucified for the sin of the world.

아니면, 이 장에서 진정으로 주목하고 있는 그 작은 뿔을 예로 들어 봅시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의 네명의 장군은 그 나라를 네개로 분할하였고, 결국 기원전 2세기에 그 작은 분할 왕국들 가운데 하나에서 통치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니엘 8장에서 묘사된 것처럼 “작게 난 또다른 뿔” (9절)이었습니다. 수양과 숫염소와 비교해볼때, 그의 힘은 작았지만 이 사람의 의미심장함은 그 스스로가 소유했던 어떤 종류의 대단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8장에서의 그의 중요성은 9-12절에서 보여집니다. 9절은 우리에게, 이 작은 뿔이 “처음에는 미세하게 시작하더니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 거룩한 땅은, 그 풍경에 한하여 생각할때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 매우 황량하고 메마른 부분이 많은 –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그것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백성들이 살았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이 놓인 장소입니다. 왜입니까? 그곳은 그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갈 세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그의 아들이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박힐 곳이었습니다.

The significance of this little horn, this mean and nasty man, Antiochus Epiphanes, is not that he pushed outward territorially to extend his power and authority like the ram in the vision but rather that he pushed upward – he challenged God. That is why God takes note of him here. This man is against God and against God’s people (“the host of the heavens”/“the host of the saints” in vv. 10, 12). He wants to destroy the work of God and wipe it off the face of the earth. And indeed during the last few years of his reign (168-164 BC), Antiochus Epiphanes made a determined effort to destroy the Jewish faith. Let us turn now to look at the two key issues raised in this vision given to Daniel : first, the mystery of evil and, secondly, the mastery of evil.

이 작은 뿔, 비열하고 잔혹한 이 남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의미심장함은 환상속의 수양처럼 그가 겉으로 그의 권력과 권위를 확장하기위하여 영토적으로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위를 향하여 – 그는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 밀어부쳤다는데 있습니다. 이점이 하나님이 그를 여기에서 주목했던 이유입니다. 그 남자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하늘의 군대”/ “제자들의 군대” 10, 12절) 대항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과업을 파괴시키고 이 땅의 면전에서 그것을 쓸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마지막 몇년의 그의 지배 동안 (기원전 168-164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부수고자 확고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속에 드러난 두가지 이슈를 살펴보는데 돌려봅시다: 첫째는 사단에 대한 신비로움, 그리고 두번째로는 사단의 정복입니다..

1. The Mystery of Evil

The New Testament talks about the mystery of evil, meaning that there are some things God has to reveal to us about evil in this world – surprising things, things that we would never have guessed at, if he had not told us. What does God have to say to us in this chapter about the presence of evil in the world? Notice, first of all, that evil is personified here. Evil is embodied in this man, Antiochus Epiphanes. You will have noticed that in the passage we read from 2 Thessalonians 2 Paul refers to the Antichrist as “the man of lawlessness”. What Paul is saying is that, immediately before Christ’s return, before the end of the world, a particular individual is going to come on the stage of history who will be the very embodiment of rebellion against God’s law. That individual is “The man of lawlessness”. And Antiochus Epiphanes is that kind of man. He is antichrist with a small “a”, if you like. He is a predecessor, one might almost say, a prototype, of the great final Antichrist. Just look at the description we have of him in vv. 23-35 of Daniel 8: “.....when rebels have become completely wicked, a stern-faced king, a master of intrigue, will arise. He will become very strong, but not by his own power. He will cause astounding devastation and will succeed in whatever he does. He will destroy the mighty men and the holy people. He will cause deceit to

prosper, and he will consider himself superior". He sounds like some of our politicians, doesn't he? Hardnosed, arrogant, a master of intrigue, deceiving but not easily deceived himself, very strong but not by his own power, very successful, very secure, it seems, and then, suddenly, we are told, he will be removed. For v. 25 concludes, "When they feel secure, he will destroy many and take his stand against the Prince of princes. Yet he will be destroyed, but not by human power". He will be cut down at the height of his power – suddenly removed. He sounds like a politician but he is more than a politician, in that he claims what belongs to God alone. The title he gave himself – "Theos Antiochus Epiphanes" means "The manifestation of the illustrious God". What Daniel is being shown here, and what we are being told, is that whenever you see a figure like that in history, combining power politics with religious pretensions, watch out – things are coming to a head.

신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사단에 관하여 드러내야 할 뉘가 -놀라운 뉘가, 만약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뉘가 -가 있다고 의미하며 사단의 신비로움에 관하여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속의 사단의 존재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사단은 사람의 형상을 한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사단은 이 사람, 안티오코스 에피파레스 속에서 형상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 장을 통해서, 바울이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불법의 사람"이라 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 직전, 세상이 끝나기 전에 특정한 한 사람이 역사의 무대로 나올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법에 대항한 반역자의 바로 그 형상을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개인이 그 "불법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안티오코스 에피파레스는 일종의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작은 "하나의" 적그리스도라 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선임자였고, 누군가는 그가 마지막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거의 초기모형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다니엘 8 장의 23-25 절에서의 그에 대한 설명을 보십시오 ".....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궤술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꺾을 베풀어 제 손으로 궤술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체하며". 이는 마치 몇몇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하고 교만하고, 책략에 능하고 거짓을 말하지만 스스로를 속이고, 매우 힘이 있지만 그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닌, 굉장히 성공적이고, 매우 보장된 것 같지만 갑자기 그가 제거될 것이라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25 절에서는 "그들이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권세가 최고에 이르렀을 때 잘려나갈 것입니다 - 갑자기 제거될 것입니다. 그는 마치 정치인인양 들리지만 하나님 홀로 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주장한 다는 점에서 그는 정치인보다 더한 존재입니다. 그 스스로가 그에게 준 이름 "데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레스"란 "뛰어난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에게 여기서 보여진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주장이 연합한 이와 같은 형태를 볼 때 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점에 이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Secondly, not only is evil personified in this man, Antiochus Epiphanes, but also evil is multiplied here. This man is described in chapter 8 as the "horn which started small". You will remember that there was also a little horn in chapter 7 – a horn which "had eyes like the eyes of a man and a mouth that spoke boastfully" (v. 8). Are these one and the same horn or is there more than one of these "little horns"? The little horn in chapter 7 actually arose out of the collapse of the Roman Empire whereas the one in chapter 8 seems to have arisen out of the collapse of the Greek Empire. Why, then, are they both described as a little or small horn? The reason is because there is going to be a whole procession of people like this before the final Antichrist appears.

둘째로 사단은 이 사람, 안티오코스 에피파레스 속에서 사람형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또한 사단은 그 수를 배가시킵니다. 8 절에서 이 사람은 "작게 시작한 뿔"로 서술되었습니다. 여러분은 7 장에서도 작은 뿔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자랑스럽게 말을 하였느니라" (8 절) 이것들은 하나의 똑같은 뿔일까요 아니면 "이 작은 뿔들"이 하나 이상이 있었을까요? 8 장에서의 뿔이 그리스 제국의 붕괴 속에서 나온 것인 반면, 7 장에서의 작은 뿔은 실제로 로마 제국의 붕괴로 인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작고 여린 뿔로 묘사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출현 전에 이 같은 사람들의 전체 행렬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In Matthew 24, when speaking about the signs of the end of the Age, Jesus actually refers to this prophecy in Daniel 8. He says to his disciples, "So when you see standing in the holy place "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spoken of through the prophet Daniel – let the reader understand – then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v. 16). Jesus is encouraging those who hear his words to go back to the prophecy of Daniel. Some would, no doubt, have said, "But that is an Old Testament book which is difficult to understand, especially chapters 7-12, and it is all history now". But Jesus says, "No, go back to the prophecy of Daniel. Read it again and reapply it

to the times in which you live because you will find that things that were prophesied there have not yet been completely fulfilled". As one commentator says, "History repeats itself, or, should I say, prophecy attains multiple fulfillments". What Antiochus Epiphanes did in 168-164 BC – slaughtering the people of God, entering the Holy Place, sacrificing a pig on the sacred altar, putting an end to the daily sacrifices in the Temple, erecting a pagan altar to Zeus on the sacred altar in the Temple – it is an abomination, it is the pits, it can't get any worse than that can it? "Yes", says Jesus in Matthew 24, "it can. It is going to happen again. Go back to Daniel and read about his vision and watch out. For you are going to see the Roman armies, this time, surrounding Jerusalem, entering and conquering the city, slaughtering the people of God, desecrating the Temple. It is going to happen again". Indeed, that is what the Romans did in 70 AD. And over the centuries it has happened again and again. There have been many antichrists in the same mould as Antiochus Epiphanes, inspired by the same spirit – hating God, hating God's people, wanting to destroy God's work. Nero lit the streets of Rome with burning Christians. No doubt many of the Christians in 1st century Rome thought this was the final Antichrist. But it wasn't! There have been others down through history – including Hitler, Stalin, Idi Amin and Islamist terrorist groups in our day. Who is to say whether any particular individual is an antichrist or the final Antichrist? The church of Jesus Christ will always be persecuted and, in its last hours, will be persecuted as never before. There will be a resurgence of evil which will culminate in the attempt to drive God from his throne. And if you call yourself a Christian, then you must make a cautious determination, even now, that you are going to remain faithful to him, come what may!

마태복음 24 절에서 예수님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에 관하여 말씀하실때, 실제로 다니엘 8 장의 예언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찌어다" (16 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예언으로 돌아 갈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약성경입니다. 특히 7-12 장은 이제 모두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다니엘의 예언으로 돌아가라, 다시 읽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다시 적용하라 이는 너희가 예언되었던 것들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라고 하십니다. 한 주석가는 "역사는 스스로 반복됩니다 혹은 저는 이렇게 말해야 겠지요, 예언은 다중적 수행을 이룹니다"라고 했습니다. 기원전 168-164 년동안 안티오쿠스 에피페레스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육하고, 성소에 들어가고, 성스러운 제단에 돼지를 제물로 올리고, 성전의 일일 제사를 종결시키고, 교회의 거룩한 제단에 제우스신을 위한 이교도의 단을 세우는 것-이것은 가증한 것이요 타락이며 더이상 악할래야 악할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 장에서 "그렇다" "그것이 가능하리라. 그것은 다시 일어나리라. 다니엘로 돌아가 그의 환상을 읽고 깨어있으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거기에 침입하여 점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육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로마 군인들을 너희가 볼것이다. 그것은 다시 올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원후 70 년에 로마인들은 그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기를 걸쳐 반복되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페레스와 같이, 같은 영에 의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길 원하는- 같은 형태를 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네로는 크리스천들을 불태우기 위해 로마의 거리에 불을 질렀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1 세기의 많은 로마에 있던 크리스천들은 그가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인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이디 아민, 그리고 오늘날의 이슬람의 테러리스트 집단을 포함하여, 역사속에서 내려오는 또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다 혹은 마지막 적그리스도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나 박해를 당할것이고, 그 마지막 시에는 전에 없었던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보좌에서 끌어내기 위한 시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사단의 등장이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 부른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조심스런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무엇이든 오거라!

2. The Mastery of Evil

Look what the end of v. 25 of Daniel 8 tells us about the mastery of evil. "Yet", Daniel is told by Gabriel concerning the vision, "he (this little horn, this antichrist figure) will be destroyed, but not by human power". Daniel is being shown here that the conflict in which he is involved as a citizen of God's kingdom is going to stretch beyond his lifetime. It is going to stretch through the ages. It is going to reach heights of severity and depths of depravity of which Daniel could not have imagined. And yet there will be an end to it! T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2,300 days in v. 14. Actually the 2,300 evenings and mornings probably refer to the number of sacrifices consecutively offered on 1, 150 days (there were 2 daily sacrifices for the continual burnt offering) – the interval between the desecration of the Lord's altar by Antiochus Epiphanes in 168 BC and its re-consecration by Judas Maccabeus in 165 BC. God will not tolerate such sacrilege forever. There is going to be an end to it – it won't go on forever. When it seems to be at its height, its peak, suddenly it will be destroyed. Even at the end, when that last awful, horrific individual walks across the stage of world history – the Antichrist who is against God and who wants to take the place of God in the

lives of people – even then we still will not need to fear him. Why? Because Paul assures us in 2 Thessalonians 2: 8 that Jesus will come and blow him away. This Antichrist, this towering figure who looks so powerful and so permanent, will be blown away in one breath when Jesus comes. Jesus will overthrow him with the breath of his mouth and destroy him by the splendor of his coming.

다니엘 8 장의 끝무렵에 사단의 정복에 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가브리엘을 통해 그 환상에 관하여 “그러나, 그는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모습)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나라의 시민으로서 연류된 그 싸움이 그의 인생을 너머 계속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를 걸쳐 계속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상상할수 없을 정도의 타락의 깊이와 잔혹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끝은 있습니다! 14 절의 2300 날의 중요성이 그것입니다. 아마도 실제로 2300 주야는 1150 일 동안 (지속적인 번제로 하루에 2 번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 기원전 168 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페레스에 의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제단과 기원전 165 년에 쥬다스 마카데우스에 의한 재회복의 기간의 간격 사이에 연속적으로 드러진 제사의 수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성모독을 영원히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끝이 있을 것입니다-그것은 영원히 계속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고조에, 피크에 오르는 것 같을때, 그것은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역사의 끝에서 조차, 그 마지막 끔찍하고 추악한 개인이 세계 역사의 무대를 걸어 다닐때도-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하고자 했던 적그리스도- 우리는 그때에도 여전히 무서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8 절에서 예수님이 오실것과 그를 날려버릴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적그리스도, 우뚝 솟은 모습을 하고 그토록 강하고 영원할것 같이 보이던 자는 예수님이 오실때 한 번의 입김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입의 한숨으로 그를 박살내시고 그의 오심의 황홀함에 의해 그는 파괴될 것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to this mystery of evil – that is what Daniel is being shown in his vision in chapter 8 and that is what Paul is telling us in 2 Thessalonians 2. It is very significant, I believe, that the only other place in the Bible where the angel Gabriel appears (other than Daniel 8) is in Luke 1 in the story of the birth of Jesus, to announce to Mary that she would be the mother of Jesus, the promised Messiah. Here is God’s answer to the problem of evil. People ask “Why doesn’t God do something?” Well, God is doing something and his answer is not a ram or a goat but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ohn 1: 29). Remember what John the Baptist’s father, Zechariah, prophesied after the birth of his son: “Praise be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becausehe has raised up a horn of salvation for us in the house of his servant David” (Luke 1: 68-69). God is doing something about the evil that is so rampant in this world – he is sending his Son into the world, he is raising up a horn of salvation for his people.

예수님이 바로 사단의 신비로움의 답변입니다 – 그것이 다니엘에게 그의 환상을 통해 8 장에서 보여진 것이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대합니다. 제가 믿는바로는, 성경에서 오직 다른 한 곳에서 (다니엘 8 장을 제외하고) 가브리엘이 등장하는데, 이는 누가복음 1 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가 마리아에게, 그녀가 메시아가 약속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발표하던 때 입니다. 여기에 사단의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뭔가를 하지 않으시냐?”고 합니다. 글썄요, 하나님은 뭔가를 하시고 있고 그의 대답은 수양이나 숫염소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요한복음 1:29) 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의 출생이후 예언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누가복음 1:68-69).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토록 미쳐 날뛰는 사단에 대해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그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뿔을 올리셨습니다.

Where does that leave us? How should it affect us? Look at the final verse in Daniel 8: “I, Daniel, was exhausted and lay ill for several days. Then I got up and went about the king’s business. I was appalled by the vision, it was beyond understanding” (verse 27). Daniel was emotionally shattered and distressed by the vision even though it is clear from v. 26 that all that is foretold is going to happen outside his lifetime. Daniel was deeply burdened about the future of God’s kingdom. He was full of zeal for the kingdom of God and his concern for it was not restricted to his own time frame. It was not restricted to the events in which he himself would participate. Even though he personally would not have to face those days of unmitigated evil that he was shown in the vision, yet he was appalled by the prospect of it. Daniel was not self-centred, he was not out to make a name for himself in Babylon, he was not out to build his own little empire. Daniel could say with George Whitfield, “Let the name of Whitfield perish as long as the name of Jesus endures”. God calls us too, you and me, to be emotionally moved by, to be involved with the ongoing cause of Christ in the world – and surely that begins with informed praying for our

missionaries and in solidarity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suffering and persecuted in North Korea, Iraq and Syria, in many countries in Africa and so on.

이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감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다니엘 8 장의 마지막 절을 봅시다: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27 절). 다니엘은 26 절부터 이 모든 것이 그의 생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으로 인해 심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괴로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관해 심히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가득차 있었고 그것을 향한 그의 근심을 그의 삶의 시간 틀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사건들에 제한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 환상속에 보여지던 가차없이 잔인한 사단의 시대를 직면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전망함으로 인해 끔찍해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바벨론에 그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그만의 작은 왕국을 세우기위해 몰두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도 조지 화이트필드와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속되는 한, 화이트필드라는 이름은 소멸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라는 계속되는 이유로 인해 우리가 연류되고 심적으로 강화감동되도록 부르셨습니다 - 물론 그것은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북한, 이라크, 시리아와 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박해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연대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And notice what Daniel did in a practical sense “I got up and went about the king’s business”, he says. That certainly brings us down to earth, doesn’t it? We are to get on with our lives, serving Christ in our families, in our occupations and studies, in our church and in the community and other groups in which he has put us. Prophecy sometimes exercises such a fascination for some people that they lose the plot – they become preoccupied with it. But we are called to live like Daniel in the present – not preoccupied with the future, not paralysed by the past, but in the present. We do not go through life constantly looking over our shoulder at the past, nor do we worry about the future. We can live in the present because we know about the past and the future – that it is all taken care of by the sovereignty of God. God’s Son, Jesus Christ, is the Lord of history.

그리고 다니엘이 실생활 면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나는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당연히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업과 학업, 우리 교회,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룹속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언은 가끔 몇몇 사람들에게는 - 그들이 너무 거기에 몰두함으로 - 핵심을 잃게 까지 매혹시키며 그들을 연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현재를 살아가도록 -미래에 너무 몰두하거나 현재가 아닌 과거에 묶여있지 않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어 계속 삶을 보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삶을 겪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알기에 -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에 의해 그것들이 돌봐지고 있기에, 우리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왕이십니다.

The question that Daniel 8 should leave each one of us with is this: “What side are you on?” Because when the King comes, when Jesus returns, it will be too late to decide. You have to make a decision now while there is still time. Choose Christ as your Saviour and King. What a joy and assurance to know that when Jesus comes again, he will overthrow and destroy the power of evil, the Antichrist, “with the breath of his mouth” and “by the splendour of his coming”. Come, Lord Jesus. Come! Amen

다니엘 8 장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쪽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왕이 오실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때는 그것을 결정하기가 너무 늦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시간이 아직도 있을때 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이자 왕으로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때 그가 사단의 힘, 적그리스도를 “한숨으로” “그가 오는 황홀함으로” 굴복시키고 파괴할 것이라는 확신과 기쁨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아멘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